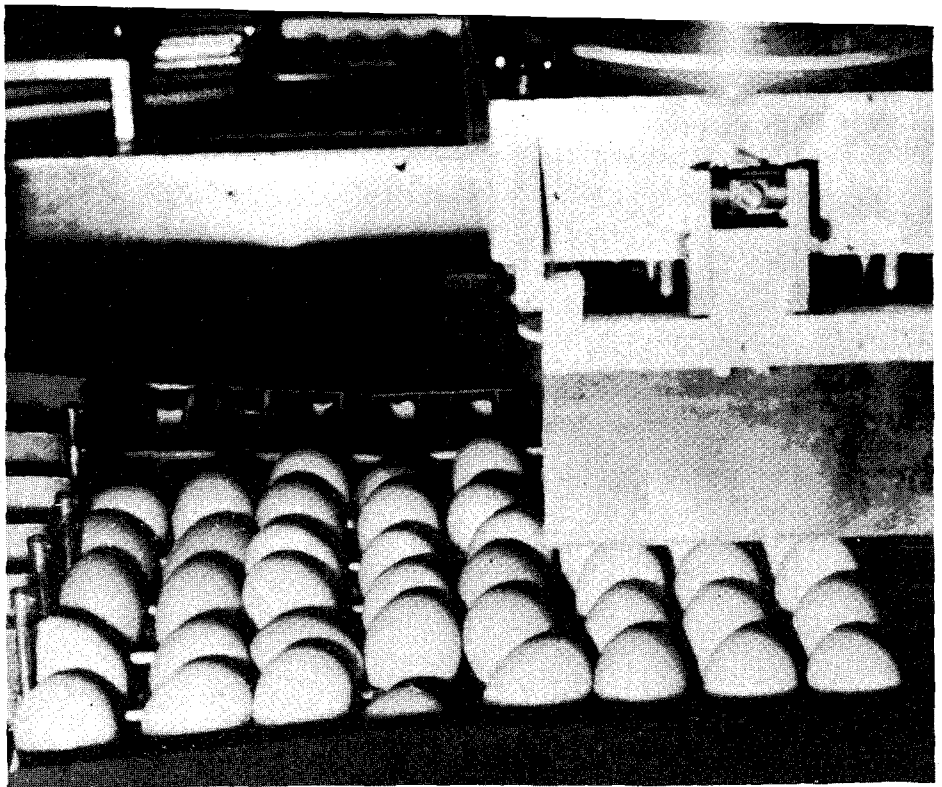


채란계 보급시기 전망



이동명
덕일농장 부사장

그간 채란계 업계는 너무나 길고 깊은 불황에 허덕여 왔다. 그 결과로 알을 생산할 닭이 없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뉴캐슬 질병의 만연으로 생산량마저 감소되었다.

전에 보면 불황 다음에는 꼭 호황이 오는 규칙적인 사이클을 그려 왔기 때문에 그 탓에 불황을 감내하고 그래도 축산을 계속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근래 3~4년동안은 아예 계속되는 파잉생산, 유통질서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계란가격은 생산원가 밑으로 계속되는 데도 계란생산량은 증가하기만 하여 왔다. 나 망

하는 생각은 안하고 다른 양계장이 망하여 생산이 줄어들면 그때 가서 지금 손해 본것을 되찾으려는 생각에서 계속 생산을 하다보니 불황만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었던 모양이다. 너무나 길고 깊었던 탓에 허탈감에 빠지고 피곤하고 양계 자체에 회의를 느낀 나머지 이제는 호황이 오겠지 하는 예감이 있었지만 하도 많이 속은 탓에 혹시 또 속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병아리 입추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이다.

어느 통계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 채란계 보유계중 평균 일령이 69주령으로 나온 것을 보았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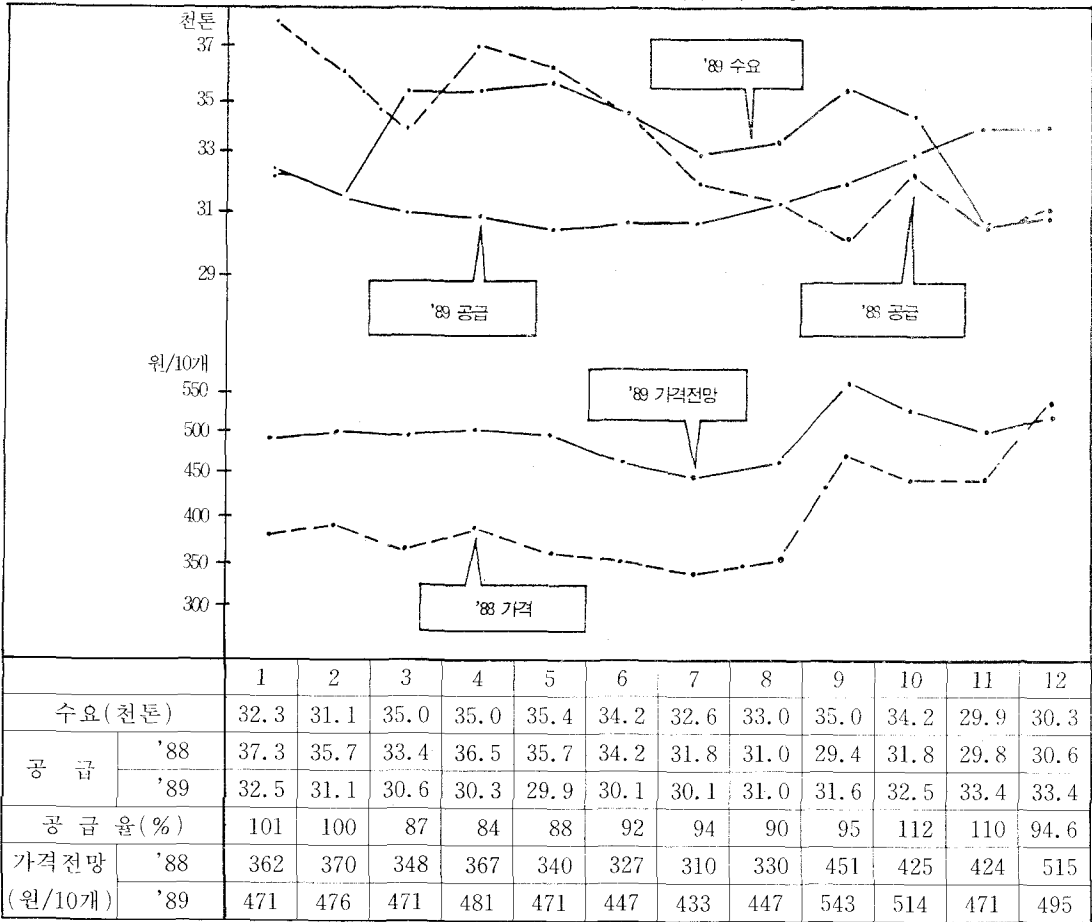
통계 자료중 꼭 69주령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좀 틀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늙은 닭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 결과로 난가를 보라.

잔알이 품귀상태라 특란과 소란의 차이가 7원, 특란과 대란 차이가 1원, 과거 특란과 대란 차이가 평균 7~8원, 가격차가 많이 날때는 12원도 차이가 있었을 때를 생각하면 참으로 기현상이다. 초산계가 없다는 증거다. 난가가 비교적 좋은 상태다. 난가가 좋다고 늙은 닭을 한없이 키울 수는 없다. 한계가 있고 늙어서 산란율이 40% 되면 팔아야 한다. 앞으로 특

'89년도 계란 수요와 공급 및 가격전망

자료: 농림수산부



- 월별 수요는 연간 총수요량을 월별식품소비동향(통계국자료)을 적용 추정
- 월별 공급은 초생주 사료 월별출하량에 의한 산란계수수와 산란계 종계입식수수에 의한 산란계를 산출하여 계란생산량 추정
- '88년도의 월별공급량은 총소비량을 월별사료생산비율에 의거 추정
- 가격전망은 과거 가격상승시기때의 전년대비 가격상승율을 적용하여 '89년 평균가격산출('79년 대비 '80년 가격상승율: 125%)
- '88평균가격 381원→'89평균가격 476원/10개(125%)
- 월별가격은 '81~'88까지의 연평균가격을 100으로한 월별가격변동지수 적용 추정

란 마저 품귀상태가 될 것이다.

부화장에서는 병아리가 없어서 아우성이지만 보유하고 있는 종계가 없으니 하루 아침에 병아리를 만들어 공급해 줄 수가 없다. 대

형 부화장의 산란계 병아리 생산량이 평균 생산량의 $\frac{1}{10}$ 정도로 줄어들었으니 종계를 만들고 또 병아리를 만들어 그 병아리가 알을 만들려면 앞으로 일년은 걸려야

한다.

그러므로 1989년 한해는 채란업만큼은 '알모자라는 해' '알값이 좋은해' '노계값 또한 좋은 해'가 되리라 확신한다. **987**